

LS산전, 북미 최대 에너지저장사 인수... '글로벌 No.1'

(파커하니핀)

(산업용ESS)

글로벌 스마트에너지 시장 공략
양사 공급실적 700MW 규모 보유
신제품 개발 등 북미 시장 확대



LS산전과 LS Energy Solutions 양사 관계자들이 새로 설립된 LS Energy Solutions CI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LS산전

LS산전이 ESS(에너지저장장치) 분야 북미 최대 기업인 파커 하니핀(Parker Hannifin)의 EGT(에너지그리드타이) 사업부를 품고 글로벌 스마트에너지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LS산전은 최근 글로벌 ESS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파커 하니핀 EGT 사업부의 생산 설비·인력 등 유무형 자산 일체를 인수하는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 LS산전의 북미 법인 산하 자회사인 LS Energy Solutions(에너지솔루션스)가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

파커 하니핀의 EGT 사업부는 지난 2007년 ESS 사업을 시작했다. 글로벌 수준의 ESS 시스템 및 PCS 설계, 제조, 구축, 서비스 등 핵심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유럽, 중남미, 호주, 동남아 등 글로벌 시장에 빠르게 진출해 누적 공급실적이 400MW(PCS 기준)를 넘어서는 등 북미 최대 ESS 공급업체로 자리매김 했다.

LS산전은 이번 인수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에 LS에너지솔루션스를

북미 법인산하 자회사 형태로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에 양사가 보유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제품, 기술역량이 결합된 ESS를 비롯한 스마트에너지 사업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S산전은 이번 손자회사 설립을 통해 양사 누적 공급실적 700MW 수준으로 산업용(유틸리티, C&I) ESS 시장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레퍼런스를 보유하게 됐다.

한국과 미국, 아시아, 중남미, 유럽, 호주 등 글로벌 영업 네트워크와 생산, R&D 시설 및 인력도 공유할 수 있게 돼 전략 신제품 개발, 생산 역량 강화를 통해 북미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자균 LS산전 CEO 회장은 "이번 인수로 LS산전의 혁신적 스마트에너지 기술 역량이 LS에너지솔루션스의 고객 기반과 기술 노하우에 더해져 세계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를 확보하게 됐다"며 "우선적으로 글로벌 전략 지역인 북미 시장에서 가시적 사업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30년까지 설치될 ESS 누적 용량은 약 125GW로 2016년 대비 약 66배 이상 증가하고 한국과 미국, 중국 등 8개국이 전체 설치 용량의 약 7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선제적 투자를 통해

해 시장 선점은 물론 향후 산업 트렌드를 주도하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라고 덧붙였다.

신재생에너지는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생산과 공급 변동성이 크다는 약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위해 전력 생산량이 많을 때 저장해 두었다가 부족할 때 이를 꺼내 쓸 수 있는 ESS 연계가 필수다.

한편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ESS 시장 역사가 빠른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는 지난해 '글로벌 에너지저장 전망'을 통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ESS 시장에 103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19년 세계 ESS 시장 규모는 올해보다 40% 성장한 17GWh(배터리 기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ESS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시장은 2016년 16억달러에서 2025년 184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SKT T맵 운전습관으로 68만명 보험료 할인

운전자 과속·급가속·급감속 수치화

SK텔레콤은 운전자의 주행 습관을 보여주는 'T맵 운전습관'으로 운전자 보험 할인 혜택을 받은 고객이 약 68만 명에 달한다고 5일 밝혔다.

'T맵 운전습관'은 운전자의 ▲과속 ▲급가속 ▲급감속 등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100점 기준으로 수치화한 것이다. 기준 점수를 넘기면 운전자 보험료를 최대 1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T맵과 연계해 운전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UBI(운전습관연계보험) 상품'을 2016년 5월 국내 최초로 선보였고, 현재까지 약 68만 명의 T맵 고객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았다.

UBI 상품에 가입한 T맵 고객은 연간 평균 6만원 저렴하게 운전자 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가입 고객 전체로 추산하면 총 408억원에 달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SK텔레콤은 D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KB손해보험, 2018년 11월 삼성화재와 UBI 상품을 출시했다. 3개 보험사의 운전자 보험 시장 점유율은 60% 이상이다.



모델이 SK텔레콤의 'T맵 운전습관'을 이용하고 있다. /SK텔레콤

향후 SK텔레콤은 'T맵 운전습관 점수'를 활용해 안전운전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보험 외 은행, 렌터카, 중고차 업체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T맵 운전습관'을 이용하는 가입자는 매달 증가하고 있다. 올 1월에 'T맵 운전습관' 이용자는 약 726만명이었으나, 이달 중 1000만 이용자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말 기준 이용자는 972만명이다.

'T맵 운전습관' 사용자들의 '운전 점수'도 높아졌다. 'T맵 운전습관'을 이용하는 고객은 최근 3000km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과속, 급감속, 급가속 등 주행 행태와 도로유형, 주행 시간대를 반영해 100점 만점으로 '운전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김나연 기자

시각장애인 위한 'AI가 읽어주는 도서관'

LGU+ '상남도서관' 서비스 출시
시각·지체·지적장애인 무료 제공

LG유플러스는 LG상남도서관과 함께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도서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책 읽어주는 도서관'을 6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책 읽어주는 도서관은 네이버 인공지능 플랫폼 클로바가 적용된 스마트홈 서비스 'U+우리집AI'에서 LG상남도서관이 보유한 1만권 이상의 음성도서를 말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책 읽어주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고객들은 클로바 플랫폼이 탑재된 AI 스피커에 "클로바, LG상남도서관 시작해줘"라고 말하면 소설, 인문, 수필, 예술 등 도서 콘텐츠를 바로 들을 수 있다.

음성명령으로 제목, 저자, 출판사, 부제목 등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들었던 5개의 콘텐츠에 대해 재생목록을 관리해 이어 들기도 할 수 있다.

책 읽어주는 도서관 서비스에는 매달 30여권, 연간 총 400여권 이상의 신간도



모델들이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도서를 제공하는 AI서비스인 '책 읽어주는 도서관'을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서가 추가된다. 이 서비스는 모든 시각장애인(1~6급)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또 책을 직접 넘기기 어려운 지체·지적·뇌병변 장애인(1급~3급)도 편의 제공을 위해 무료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책 읽어주는 도서관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네이버 클로바' 앱의 '스킬 스토어' 메뉴에서 로그인을 하면 된다.

향후 LG유플러스와 LG상남도서관은 음성도서 콘텐츠를 추가 확보하고, AI 스

피커 외에 다른 플랫폼으로도 서비스를 확장하는 등 시각장애인들의 정보격차 문제 해소에 양사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내년에는 음성 AI뿐만 아니라 영상 AI를 활용한 시각장애인 전용 서비스를 선보인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 9월 시각장애인 전용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서비스인 '소리세상'을 출시하고, 2월과 5월에는 시각장애 가정 1000가구에 AI스피커를 보급했다. /김나연 기자 silkni@

포스코강판, 고급 컬러강판 전용공장 증설

포스코강판이 고급 컬러강판 전용 공장을 증설하고 수익성 개선에 드라이브를 건다. 컬러강판은 고부가가치 철강재로 철강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포스코강판은 5일 포항시 괴동동에 위치한 컬러공장에서 하대용 포스코강판 사장, 이강덕 포항시장, 오형수 포스코포항제철소장, 고객사, 공급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산 6만톤 규모의 4컬러강판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준공한 4컬러강판공장에서는 용융아연도금강판과 스테인리스제품 등에 다양한 컬러를 입혀서 가전용, 전자제품용 제품을 생산한다.

이 공장은 4번의 코팅과 건조, 6번의 인

쇄를 거쳐 자연에 가까운 색상과 사실적인 질감을 보여준다. 특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발생하지 않는 도료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이고 물체의 윤곽이 뚜렷하게 비치는 선명성과 광택이 뛰어난 UV(자외선) 경화제품을 생산하여 프리미엄 가전제품과 실내 장식용 건축자재로까지 사용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1600mm의 넓은 폭과 3mm의 두꺼운 두께를 가진 컬러강판 제품도 생산 가능해 고객사에서 원하는 규격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게 돼 대형 오피스건물 패널, 가드레일, 토목용 파형강판 등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성운 기자

쌍용차, 호주에 첫 직영 판매법인 출범

쌍용자동차가 호주에서 사상 첫 직영 해외판매법인을 출범하며 글로벌 판매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5일 쌍용차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과 30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 크라운 메트로폴 호텔에서 쌍용차 예비대 부사장, 김성호 주멜버른 총영사, 팀 스미스 호주법인장, 현지대리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쌍용차 브랜드 론칭행사를 가졌다.

행사를 통해 쌍용차는 티볼리, 티볼리에어(현지명 XLV), G4렉스턴(현지명 렉스턴), 렉스턴 스포츠(현지명 무쏘)를 소개하고 호주시장 사업 비전을 공유했

며, 참석자들은 쌍용차 사상 첫 직영 해외 판매법인인 호주법인의 출범을 축하하고 SUV 전문브랜드 쌍용차의 성공적인 호주시장 안착을 기원했다.

쌍용차는 공식적인 법인 출범에 앞서 지난 7월 호주 현지 기자단이 평택공장을 방문해 쌍용자동차의 호주시장 진출에 큰 기대감을 나타낸 만큼, 조만간 현지 언론을 별도로 초청해 미디어 브랜드 론칭 행사 및 대규모 시승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 법인이 위치한 멜버른 메트로 지역, 시드니, 중소도시 등 3단계에 걸쳐 판매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브랜드 인지도 확



쌍용자동차 예비대 부사장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 크라운 메트로폴 호텔에서 쌍용자동차 브랜드 론칭 행사에서 열린 브랜드 론칭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보 및 신뢰 구축을 위해 스포츠행사 스폰서십,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현지 마케팅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